

2009 꿈을 펼쳐라

〈2〉 연극 연출가 이행원 씨

서울 무대 '100 페스티벌' 참여 "광주 연극의 참 맛 보여줄터"

연출가나 극단 대표가 꿈꾸는 로망 중 하나는 전용극장을 갖는 것이다. 자신만의 극장은 단원들과 부대끼며 수정 작업을 거쳐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터전이기 때문이다.

1987년 대구 극단 '처용'을 시작으로 광주의 '드라마스튜디오'를 거쳐 극단 '청춘' 대표를 역임했던 연출가 이행원(42·크리에이티브드라마 대표·씨디아트홀 관장)씨는 지난해 3월 그 소망을 이뤘다. 전남대 정문대 소극장 씨디아트홀을 열 때는 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지만 지난해 성적표가 썩 나쁘지는 않았다.

"연극이 활성화 되려면 극장이 많아져야 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방 문화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 걱정하는 소리가 많았고 저 역시 굉장한 고전할 줄 알았죠. 늘 현실이 문턱에서 업무를 내지 못했지만 막상 문을 열고 보니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들도 공연을 한번이라도 더 진행할 수 있어 자신감도 얻었구요."



이행원 크리에이티브드라마 대표는 올 한해 서울 무대에 진출하는 등 다양한 작품들을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씨디아트홀 운영 성과 광주 연극제에도 참가 공동 창작극 올릴 계획

이 대표는 올해 지역연극인들의 또 하나의 꿈인 서울 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일본과 서울 지역 극단을 비롯해 모두 14개 팀이 참가하는 '100 페스티벌' 참여를 통해서다. 특히 '100 페스티벌' 작품상 수상팀에게는 일본 공연 경비도 지원될 예정으로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지방 극단들은 경비 때문에 쉽게 서울 공연에 나서지 못하는데 이번 페스티벌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연극제 관공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야죠. 광주의 색깔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작품,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작품들을 올리려고 단원들과 고민중입니다."

지난해 한국 연극 100년을 맞아 진행됐던 전국소극장네트워크 페스티벌은 올해도 계속된다. 지난해 씨디아트홀에서 열렸던 소극장네트워크 페스티벌에는 전국 6개 극단이 참여했고 크리에이티브드라마는 안양·부천·부산·인천·서울 등지에서 '의자는 잘못 없다'를 공연, 노희철씨가 연기상을 수상하는 등 호평을 받았다.

이 대표의 올해 계획 중 하나는 광주연극제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 대표가 이끄는 크리에이티브드라마가 협회 정식 회원단체가 아닌 터라 지금까지 참여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무대'로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서다.

또 단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올해는 처음으로 공동

창작극도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현재 '치질'에 대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사람 사는 이야기를 전하는 작품을 구상중이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진행했던 '교육연극'도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극장 운영이나 극단 운영 모두 버거워 사실 작품 하나 새로 들어갈 때마다 무섭기도 해요. 작품이나 극장 운영에만 신경을 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건상 청수며 잡일까지 모두 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자는 잘못 없다', '마술가게' 등을 장기간 올리면서 입소문도 조금 나고 관객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올해도 열심히 공연 해야죠.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질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대표는 앞으로 극단을 대표하는 '레퍼토리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단원들과 더욱 열심히 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지역 예비 문인들 신춘문에 약진

소설·시나리오 등 10여명 당선... 광주대 문창과 '기염'

각 신문사들이 일제히 2009년 신춘문에 당선자들을 발표한 가운데 올해 역시 광주·전남 예비 문인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번 신춘문예에서는 소설, 시는 물론 시나리오 부문에서도 당선자들을 내 지평을 넓히는 등 광주 전남출신 10여명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문화일보 소설 부문에 '안녕, 피터'로 당선된 황지운(여·25)분명 박시예)씨는 전남대 국문과 출신으로 출판사 영업팀 편집부에서 일하고 있으며 광주대 문창과 졸업생인 석연경(여·40)씨는 소설 '맥가이버'로 영남일보에 당선됐다.

역시 광주대 문창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강순덕(여·52)씨는 강남이라는 필명으로 '내 사랑 이꽃분'을 써 한국일보 동화 부문에 당선됐다. 강 씨는



황지운씨 석연경씨 박선영씨 차노혜씨 김재준씨

생동감과 흡입력있는 필치로 호평을 받았으며 2002년 광주시민백일장 대상과 2008년 전남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바 있는 '중고 신인'이다.

순천대 문창과에 재학중인 박선영(여·26)씨는 '메모리'라는 작품으로 동아일보 시나리오 부문에 당선돼 기염을 토했다. 심사위원들은 '메모'는 인간이 지닌 양면성을 독특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한정된 공간과 변한 인물들의 구도 안에서 흥미를 잃지 않게 하는 솜씨가 돋보였다'고 평했다.

이밖에 목포 출신 박성민(45)씨는 '허균'이라는 시조로 서울신문에, 문

지원(여·36)씨는 '왕버드나무의 소원'이라는 작품으로 강원일보 동화부문에 각각 당선됐다.

또 광주일보 신춘문예의 경우 소설 부문의 광주대 문창과 출신 차노혜(여·34), 시 부문의 조선대 국문과 출신 김재준(43), 동화 부문의 정인순(44)씨 등이 모두 광주 출신 예비 문인들이었다.

한편 광주대 문창과의 경우 전북일보 동화부문에 '갈치기 활아버지'로 당선된 장은영(여·45)씨를 비롯, 재학생 및 졸업생 7명이 당선돼 명실공히 작가 산실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소설가 김연수씨 이상문학상 대상



소설가 김연수(39·사진)씨가 문학사상이 주관하는 제33회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자로 6일 선정됐다. 수상작은 단편 '산책하는 이들의 다섯 가지 즐거움'.

이 작품은 지난해 주요 문예지에 발표된 중·단편을 대상으로 문단 관계자들의 추천과 예심을 거쳐 올라온 10편의 후보작 중 문학평론가 김윤식, 권영민 등으로 구성된 본심 선고위원회의 만장일치 지지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선고위원회는 "이 작품이 궁극적으로 소설의 미적 자율성에 대한 작가의 신념을 형상화하는 데에 성공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1993년 '작가세계' 시 부문으로 등단한 후 '훈빠이, 이상', '나는 유령작가입니다' 등의 작품으로 동서문학상, 동인문학상, 대산문학상, 황순원문학상 등을 잇따라 수상했다.

한 겨울에 花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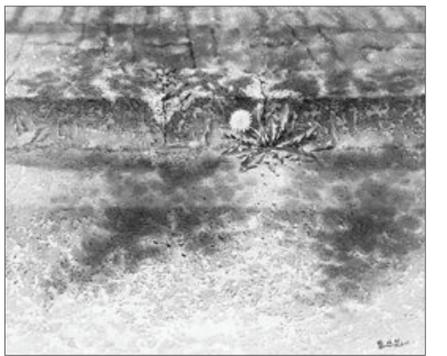
광주신세계갤러리 12일까지 20여점 전시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오는 12일까지 꽃을 주제로 한 '한 겨울에 花를 만나다'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강동권, 박일구, 위진수, 유태준, 이일순, 한부칠씨 등 지역작가들이 참여해 2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강씨는 만개한 꽃을 원색조의 화려한 색채로 그려낸 극사실주의 작품을 선보인다. 꽃이 생명력을 발휘한 최고의 순간을 포착해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드

러낸 작품이다. 또 박씨는 매화를 찍은 흑백 사진에 옛 시 구절을 쓴 이색 작품을 전시한다. 문인화의 시(詩), 서(書), 화(畫) 삼절의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새롭게 해석했다.

이 밖에 위씨는 흑한을 견디 매화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을, 한씨는 칙박한 들판에 피어오른 민들레 등을 통해 희망을 전달해주는 작품을 각각 출품했다. 문의 062-360-1630.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한부칠 작 '바라보다 도심 속 그림자'

문화예술잡지 '대동문화' 통권 50호 나왔다

발행 13년만에

예향 남도의 문화적 숨결을 담은 문화예술잡지 '대동문화'가 2009년 1·2월호로 통권 50호를 돌파했다.

이번 50호 기획 특집은 '남도, 아시아 문화 영상 산업기지로 만들어가자'로 조선대 김영주 교수와 김영문 대동문화재단 문화콘텐츠 사업단장 등이 필자로 참여해 광주전남의 문화적 자산의 근본과 세계적 가치를 지닌 콘텐츠로의 개발 가능성을 짚어냈다.

또 '아트라이프'에서는 강원도 태백에서 광부가 돼 석탄을 캐며 예술과 삶을 일직시킨 화가 황재형씨의 작품과 예술 세계를 깊이 있게 조명했다.

이밖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상길 원장과 연극인 원광연씨의 인터뷰, 시간문화 평론가 류제홍씨의 도시 커뮤니티 디자인 사례가 실려 내용도 풍성하다.

1990년대 말 '예향'과 '금호문화' 등 지역 문화잡지가 잇따라 폐간된 가운데 발간돼온 문화잡지로 이번 50호 발간은 1995년 6월 첫 권을 내놓은 후 지금까지 기업이 아닌 순수 민간단체와 민



회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값진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대동문화재단 조상열 회장은 발행인의 편지를 통해 "13년만에 열약한 환경 속에서 50호를 발간하게 돼 신기하면서도 후원을 아끼지 않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불황으로 여러 가지 여건은 안 좋지만, 문화수도 광주에서 다양한 문화정보를 실어 나르는 문화잡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movies featuring a yellow and red background with the text '영화안내' and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It lists various movie theaters and their current screenings, including '메가박스', '엔터 시네마', '콜롬버스 시네마', '씨너스 전대', '하미 시네마', and '제일 시네마'. Each theater lists movie titles, genres, and showtimes.